

7만년 인류 흔적 '임실 가덕리 하가유적'

군, 구석기시대 유적·문화층 확인... 국가사적 지정 위한 학술대회 열려

임실군은 후기 구석기시대 인류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대표 유적인 임실 가덕리 하가유적의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해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지난 2월 27일 임실문화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구석기 연구 분야 전문가와 학계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존 및 활용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임실 가덕리 하가유적은 삼진강 상류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 대규모 구석기 유적으로, 2006년 이후 2025년까지 총 9차례에 걸친 시굴·발굴조사를 통해 약 3만여 점의 석기가 확인됐다.

조사결과 최소 3개 이상의 구석기 문화층이 확인됐으며, 약 7만년 전 중기 구석기부터 후기 구석기시대에 이르는 장기간 인류 활동의 흔적이 밝혀졌다.

특히, 2025년 전주문화유산연구원 발굴조사에서는 구석기 제3문화층이 확인됐으며, 산성화산암계 맨석기와 여러편 석기 등이 출토됐다.

토양시료 분석결과 71,730±8,600 BC라는 절대연대값이 도출되어 가덕리 하가유적이 중기 구석기시대부터 형성된 유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가덕리 신경유적에서는 석기 제작의 전 공정이 확인되는 대규모 제작터가 확인됐으며, 스페찌르개, 돌날 석기, 졸돌날석기 등 다양한 석기군이 공간별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일본열도 후기 구석기 문화와 관련된 나이프형 석기와 각추상 석기도 출토돼 한·중·일 동북아시아 구석기 문화의 기술 교류와 이동 양상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가덕리 하가유적의 국가사적 지정 필요성과 함께 보존·연구·교육·관광을 연계한 활용 방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임실군은 향후 추가 연구와 학술 검증을 통해 국가사적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하가유적을 삼진강 유역 선사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은 후기 구석기시대 인류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대표 유적인 임실 가덕리 하가유적의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해 본격화한다.

양상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가덕리 하가유적의 국가사적 지정 필요성과 함께 보존·연구·교육·관광을 연계한 활용 방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임실군은 향후 추가 연구와 학술 검증을 통해 국가사적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하가유적을 삼진강 유역 선사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양상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가덕리 하가유적의 국가사적 지정 필요성과 함께 보존·연구·교육·관광을 연계한 활용 방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임실군은 향후 추가 연구와 학술 검증을 통해 국가사적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하가유적을 삼진강 유역 선사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본격 운영

남원시, 마을회관·가정 방문 현장 밀착형 복지 행정 추진

남원시가 복지 소외계층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의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남원시는 지난 13일 대신면 감성마을을 방문해 올해 첫 현장 상담 활동을 개시했으며, 이번 사업은 복지 정보 접근성이 낮고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시청 희망복지지원팀이 마을회관과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복지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관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중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지원 대상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일반 주민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회·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특히 이번 상담실은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전기·수도 점검, 청소 등 고령의 어르신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하며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마을회관과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복지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관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중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지원 대상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일반 주민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회·심리적

필요한 일반 주민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회·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특히 이번 상담실은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전기·수도 점검, 청소 등 고령의 어르신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하며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특히 이번 상담실은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전기·수도 점검, 청소 등 고령의 어르신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하며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특히 이번 상담실은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전기·수도 점검, 청소 등 고령의 어르신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하며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특히 이번 상담실은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전기·수도 점검, 청소 등 고령의 어르신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하며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복지 소외계층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주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의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남원시는 지난 13일 대신면 감성마을을 방문해 올해 첫 현장 상담 활동을 개시했으며, 이번 사업은 복지 정보 접근성이 낮고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시청 희망복지지원팀이 마을회관과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복지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관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중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지원 대상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일반 주민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회·심리적

필요한 일반 주민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회·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특히 이번 상담실은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전기·수도 점검, 청소 등 고령의 어르신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하며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특히 이번 상담실은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전기·수도 점검, 청소 등 고령의 어르신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하며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특히 이번 상담실은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전기·수도 점검, 청소 등 고령의 어르신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접수하며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은 지난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조광희 부군수 주재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생활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경제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물가 안정 선제 대응 나서

순창군, 민관 협력 대책회의 갖고 대응 방안 논의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지역 물가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물가 안정 관리에 본격 나섰다.

군은 지난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조광희 부군수 주재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생활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경제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제·농업·위생 등 관련 부서 팀장들과 외식업협회, 이·미용협회, 소상공인협회, 학원협회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종별 가격 동향을 공유하고 물가 안정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외식비, 이비용비, 학원비 등 개인 서비스 요금과 농·수·축산물,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을 중심으로 최근 생활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중등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지역 물가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 소비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

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격 안정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각 협회에서는 업종별 가격 동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합리적인 가격 유지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역 생활물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 TF팀을 구성해 주요 생활물가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 변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외식업 및 개인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행정기관과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해 지역 물가 관리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히 민·관 협력을 기

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7개 기업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 가져

순창군은 지난 12일 순창군 가족센터에서 여성 인력 채용 확대와 여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7개 기업과 '2026년 순창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주관했으며,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업회사법인순창장류(주), 주식회사 순창우리식품, 공중음식문화진흥회순창지회법인, (주)스



퀴즈맥주 순창공장 등 관내 기업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하고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0일까지 시청 기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영입신고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시는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진행하며, 가격 수준과 위생·청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정 업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읍,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나선다

임실읍이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 꽃길을 조성해 쾌적한 도시 경관 만들기에 나선다.

외래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임실읍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1,300만원을 투입해 임실읍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화분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된다.

사업 구간은 임실읍 주요 시가지인 1구간(임실축협 삼거리~농협중앙회 삼거리)과 2구간(농협중앙회 삼거리~임실교)로, 삼가와 식당 등이 밀집해 있어 주민과 방문객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다.

임실읍은 봄철 편지를 시작으로 여름철 메리골드, 가을철 국화를 식재해 계절별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고, 정기적인 관수와 제초, 고사 개체 제거 및 보식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기에 대비한 집중 관리와 병해충 예방을 실시하고, 가을철에는 국화 식재 후 개화 관리와 함께 화분 철거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남원시가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2026년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청결한 위생 상태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발굴·지원하는 우수 업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0일까지 시청 기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영입신고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시는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진행하며, 가격 수준과 위생·청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지정 업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